

제14장 포스트식민, 탈식민, 반식민의 지리

Cresswell, T. (2024). 지리사상사. (박경환, 류연택, 심승희, 정현주, 서태동, 역). 시그마프레스. (원본 출판 2024년)

지리사상사 세미나

2025.08.19

최경현

앞 장에서 드러났듯이, 지리학이라는 학문은 서양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리학이 급진적이었던 때에도, 그 역사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지리 이론으로 통용되는 지식과 그렇지 못한 지식 간의 관계는 수 세기에 걸쳐 형성된 권력 관계에 의해 작동하는 체계적인 배제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은 포스트식민(postcolonial), 탈식민(decolonial), 그리고 반식민(anticolonial)이라는 이론적 접근을 통해 지리학과 같은 학계의 틀 속으로부터의 배제의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은 식민주의의 물질적, 인식론적 폭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앎과 지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바네사 와츠(Vanessa Watts)는 서양 학자들이 토착민 지식 체계를 어떻게 장소 기반의 토지 체계로부터 고집어내어 단순한 이야기나 신화로 전락시켰는지에 대해 기술한다. 그는 호데노쇼니 부족의 창조 신화인 하늘-여자 이야기를 예로 들며, 이를 단순히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의 진실로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다. 와츠는 유럽-서양 사상이 존재론과 인식론을 분리하는 반면, 원주민의 '장소-사상(place-thought)'은 장소와 사상을 분리하지 않는 비구별적 공간(non-distinctive space)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땅(land)이 살아있고, 생각하는 존재이며, 장소-사상의 확장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이 행위주체성을 얻는다고 전제한다.

데보라 버드 로즈(Deborah Bird Rose)에 따르면, 애버리지니에게 '나라(Country)'는 의식과 의지를 가진 살아있는 실체이다. 질 밀로이(Jill Milroy)와 그랜트 레벨(Grant Revell)은 애버리지니의 이야기는 선조들의 여행을 나라와 연결해 노랫길(songlines)을 통해 구성되며, 이러한 이야기는 실천적인 감각을 통해서 살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민주의는 이러한 원주민의 지리적 상상력을 지우기 위해 강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등, 서양 지도학의 허구적인 허구적인 경계와 테두리 속에 가뒀다. 사라 헌트(Sarah Hunt)는 학계 지리학이 원주민 지식에 대한 '인식론적 폭력(epistemic violence)'에 맞서, 두 개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토론했다. 이러한 배제는 원주민 지식뿐만 아니라 풍수, 인도의 힌두 사상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포스트식민주의와 지리

이러한 배제와 말살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이 포스트식민주의(postcolonialism)이다. 포스트식민주의는 넓게 식민주의와 그 지속적인 영향력을 비판하는 지식 분야를 의미하며, 과거와 현재, 옛 식민지와 제국의 심장부 모두에 미친 식민주의의 영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호미 바바(Homi Bhaba),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votry Spivak)과 같은 유색인 학자들이 이 분야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포스트식민주의는 두 가지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는 '식민주의 이후'라는 시간적 의미로, 과거 식민지였지만 지금은 독립한 곳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웨일스나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는 식민주의, 초국적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식민주의, 그리고 데릭 그레고리(Derek Gregory)가 주장한 '식민적 현재(colonial present)'의 문제를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둘째는 식민주의의 모든 형태를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지리학에서 포스트식민주의는 크러쉬(Crush)가 정리했듯이, 식민 지배에 대한 지리학의 관여를 폭로하고, 식민 담론 속 지리적 재현의 특성을 설명하며, 식민 본국의 이론 및 전체론적 재현 체계와 로컬 지리에서의 식민주의적 실천 간의 단절을 드러내는 것, 식민 하위 계급의 은폐되어 왔던 공간을 복원하고 그 자신의 공간적 의미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제임스 시더웨이(James Sidaway)는 지리학 자체가 서양의 식민주의적 과학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포스트식민 지리는 그 자체로 불가능에 직면한다는 역설을 지닌다고 말한다.

탈식민성의 정의

포스트식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등장한 것이 탈식민성(decoloniality)이다. 탈식민 이론은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원주민과 관련되어 있으며, 권력의 식민성(coloniality of power)를 문제 삼는다. 키하노(Quijano)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 개념은, 현재에도 지속되는 식민주의의 영향과 잔재를 지칭하는데, 이는 사회·문화·인종적 위계를 기반으로 일부 사람과 물건은 가치 있게 여기고, 나머지는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고와 행동 양식으로 나타난다. 월터 미놀로(Walter Mignolo)는 유럽적 자화상인 모더니티가 식민성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탈식민주의 학자들은 식민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탈식민화의 과정이 식민성을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식민 권력 매트릭스(colonial matrix of power, CMP)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빙꼴라리다드(vincularidad, 존재의 상호연결성 또는 상호관계성)와 같이 사고와 땅의 연계성을 주장하며, 다양한 이론들이 공존하는 다원세계(pluriverse)를 지향한다. 이들에게 이론과 실천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며, 이는 유럽-서양 사상의 특징인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하는 것이다.

탈식민 지리와 반식민 지리

터크와 양(Eve Tuck and K. Wayne Yang)은 "탈식민지화는 은유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통해 학계에서 '탈식민화'라는 용어가 원주민의 땅과 삶을 송환(복원, repatriation)하는 구체적인 실천 없이 다른 사회 개선 프로젝트의 대체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라

래드클리프(Sarah Radcliffe)와 이자벨라 라드허버(Isabella Radhuber)는 탈식민성¹이 유럽 중심의 지식 및 권력 관계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시공간과 존재에 대해 배움으로써 세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임을 강조한다.

파라나 설타나(Farhana Sultana)는 기후 변화 문제를 분석하는 데 탈식민성 이론을 적용해 기후 식민성(climate colonial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 변화의 영향이 불균등하게 경험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 역시 식민주의적 논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비판한다. 기후를 탈식민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식민 구조와 담론을 드러내고 대평가하고 해체함으로써 이를 보편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인종화된 식민주의적 실천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이들의 헤게모니를 드러내어, 억압과 제국 만들기를 위한 일상의 전략들을 폭로하는 것이다.

맥스 리부아론(Max Liboiron)이 참여하는 CLEAR는 '탈식민' 대신 '반식민(anticoloni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들은 탈식민화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는 뉴펀들랜드라는 특정한 맥락에 기인하며, 이와 관련된 용어 역시 쉽게 전유된다고 말한다. 리부아론은 어페류의 내장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실험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조차 원주민의 땅을 폐기물 처리 공간으로 여기는 식민주의 가정에 기반하고 있음을 성찰하며, "오염은 식민주의다"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학이 '장소-기반적'이며, 보편적인 척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발제문 - 한국의 이중적 식민성과 탈식민 담론의 과제

서론

한국 사회에서 '탈식민'과 관련된 담론은 대부분의 경우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그 역사적 상흔을 극복하려는 '피해자'의 서사로 이해된다. 이것은 분명 한국 사회가 아직도 해결할 과제가 남아있는 문제지만, 탈식민 담론의 복잡하고 다중적인 의미를 온전히 포괄하지는 못한다. 제14장은 식민주의가 단순한 '지배자-피지배자'의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임을 상기시킨다. 본문에서 미국이 "원래 "식민지"로 시작되었지만, 식민주의적·신식민주의적 실천을 동반한 세계의 권력이 되었다는 서술과, 캐나다의 다층적인 식민적/포스트식민적 맥락에 관련된 서술이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와 같이 한국 역시 자신의 위치를 되물을 필요가 있다.

본 발제는 한국 역시 일본에 대해서는 '탈식민'의 주체이지만, 압축 성장을 거치며 동남아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경제적·문화적 신식민주의적 행위자로 작동하

¹ 번역본에는 식민성이라고 되어있으나, 원문에는 탈식민성(decoloniality)라고 표기 되어 있으며, 맥락상으로도 탈식민성이 맞음.

는 이중적 위치에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 지리학계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탈식민화는 과거 피해의 역사에만 머무르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맺고 있는 '권력의 식민성(coloniality of power)'을 성찰하는 자기비판적 과정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피해자 서사와 그 한계

일제강점기가 한국의 지리적 사고에 남긴 흔적은 깊고 명백하다. 창씨개명과 지명 변경 등의 문화적 말살 정책은 단순한 통치를 넘어, 한국인의 정체성이 뿌리내린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재편하려는 시도였다. 이는 제14장에서 언급된 호주 원주민의 살아있는 실체로서의 '나라(Country)'가 식민 지도학에 의해 지워지고, 그들의 '노랫길(songlines)'이 무시되었던 과정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인식론적 폭력(epistemic violence)'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해방 이후 '탈식민' 담론은 흩어진 열린 민족적 정체성을 재구축하고 과거사를 청산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 서사에만 머무를 경우, 한국은 자신도 모르게 또 다른 맹점에 빠지게 된다. 한국의 '탈식민' 담론이 '일본 제국주의'라는 단일한 외부의 적에 집중한다면,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맺고 있는 복잡한 권력 관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한계를 만들게 된다. 피해자라는 정체성은 한국인에게 도덕적 위안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현재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신식민주의와 '권력의 식민성'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압축 성장과 대외 경제 진출 과정은 한국이 피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권력의 주체로 등장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와 같은 값싼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국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이는 종종 열악한 노동 환경과 환경 파괴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서양의 제국이 식민지에서 자행했던 착취의 방식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경제적 신식민주의'의 양상을 띄었다.

또한,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 대중문화는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문화적 헤게모니를 형성하며, 글로벌 사회 내에서 또 다른 형태의 문화적 식민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특히 한류가 유행하는 국가에 대해 문화적 우월감을 투사하는 복잡한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 바로 키하노(Quijano, 2000)의 '권력의 식민성(coloniality of power)'이다. 이는 공식적인 식민지배가 끝난 후에도 제국이 구축한 인종적·문화적·경제적 위계질서와 사고방식이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원용하자

면,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직접적 지배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제국이 구축한 위계적 세계관, 즉 '권력의 식민성'을 깊이 내면화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내면화된 식민성을 통해 다른 국가들을 '덜 발전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경제적·문화적 영향력의 행사를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한국은 식민주의의 피해자인 동시에 신식민주의적 권력을 행사하는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주체임을 인정하고, 탈식민의 과제를 '반일'을 넘어 '자기 성찰'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이중적 위치에 대한 성찰 없이는 한국의 탈식민 담론은 완성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지리학계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탈식민화는 유럽-서양의 이론을 수입하여 일본을 비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놀로와 왈쉬(Mignolo and Walsh)가 말한 다원세계(pluriverse)의 관점에서, 한국 스스로가 다른 국가의 고유한 역사와 장소-사상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되묻는 실천이 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 기업의 해외 노동 착취 문제,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적 공간, 그리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재현하는 아시아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피해자'라는 안락한 위치에서 벗어나, 현재 한국의 '권력의 식민성'을 해체하려는 불편한 노력이야말로 한국 지리학계가 자신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수행해야 할 진정한 탈식민화의 과제이다.